

확장되는 드로잉

글. 정유선 뉴미디어 아티스트/서울여대 초빙강의 교수



너와 나 사이 'Between You and I', 앤서니 맥콜(Anthony McCall) Installation view, Peer/The Round Chapel, London, 2006 / 사진 출처 : 위키피디아

갤러리의 어둠 속에서 하나의 빛이 새어 나온다. 그 빛은 위에서부터 내려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원형의 곡선을 그리며 빛의 라인으로 변하게 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장의 빛과 바닥의 움직이는 빛의 라인 사이의 공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거대한 콘 형태의 빛의 조각으로 변하게 된다. 관객들은 안개 속에 비치는 생동감 있는 빛의 원추형에 들어가 작품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또 그 형태들을 변형시키며 상호작용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영국 출신으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 앤서니 맥콜(Anthony McCall)의 2006년도 작품 '너와 나 사이(Between You and I)'는 영화와 조각 그리고 드로잉의 경계선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빔 프로젝션에서 나오는 움직이는 빛의 라인 드로잉을 공간에 그려 넣는 그의 작업은 드로잉이 어떠한 방식으로 현재 확장되고 실험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현대미술에서 현재 드로잉은 2차원 평면의 종이 위에 그려지는 아이디어, 습작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른 매체들과 섞이고 융합되어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드로잉의 확장성과 실험은 몇 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그 의미와 매체의 확장성 변화 추이를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하자.

현대적 의미의 드로잉의 탄생

지난 호의 글을 통해 전통적으로 드로잉은 사물의 묘사를 위한 기술적인 숙련의 수단이나 본격적인 회화 작품의 밑그림으로 이해되었으며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천재적인 작가의 영감이나 착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실적인 묘사를 위한 훈련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현대 드로잉의 탄생은 이러한 ‘회화란 자연의 사실적인 묘사이다’라는 전제에서 탈피하여 인상주의 시대에 주관적인 표현으로 나타난다. 19세기 사진술의 등장으로 회화는 전통적 재현의 기술을 반성해 보아야 하는 필연적인 상황에 놓인다. 사진기의 발달로 이제 더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더욱 독창력을 발휘하여 사진의 영역 너머에 있는 진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인상주의 예술가들을 점점 더 시각적인 사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회화는 자연을 모방하거나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추상화하는 정신적인 활동영역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회화가 흘러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방적 기술의 드로잉 기능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조르주 쇠라의 흑백 드로잉을 보자. 그는 하나의 독립된 장르의 완성품으로 드로잉의 선이 점으로 분해되어 나타난 최초의 근대화라고 할 수 있다. 쇠라가 목탄으로 그린 드로잉에는 종이의 표면이 벗겨질 정도로 강하게 칠한 부분들이 있다. 이 종이 표면에 나타난 질감의 강도로 그는 강렬한 음영을 표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인상주의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공상적인 표현 기법을 포함한 모든 전통적인 회화 기법(원근법, 외곽선) 등을 거부하고 색채, 색조,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었다. 빛과 함께 시시각각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하였다. 요컨대 인상주의자들은 감각이라는 것을 개념적인 영역으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 감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부로 향해 있지만 감각의 실체라는 것은 내면에 실존한다고 믿은 것이다. 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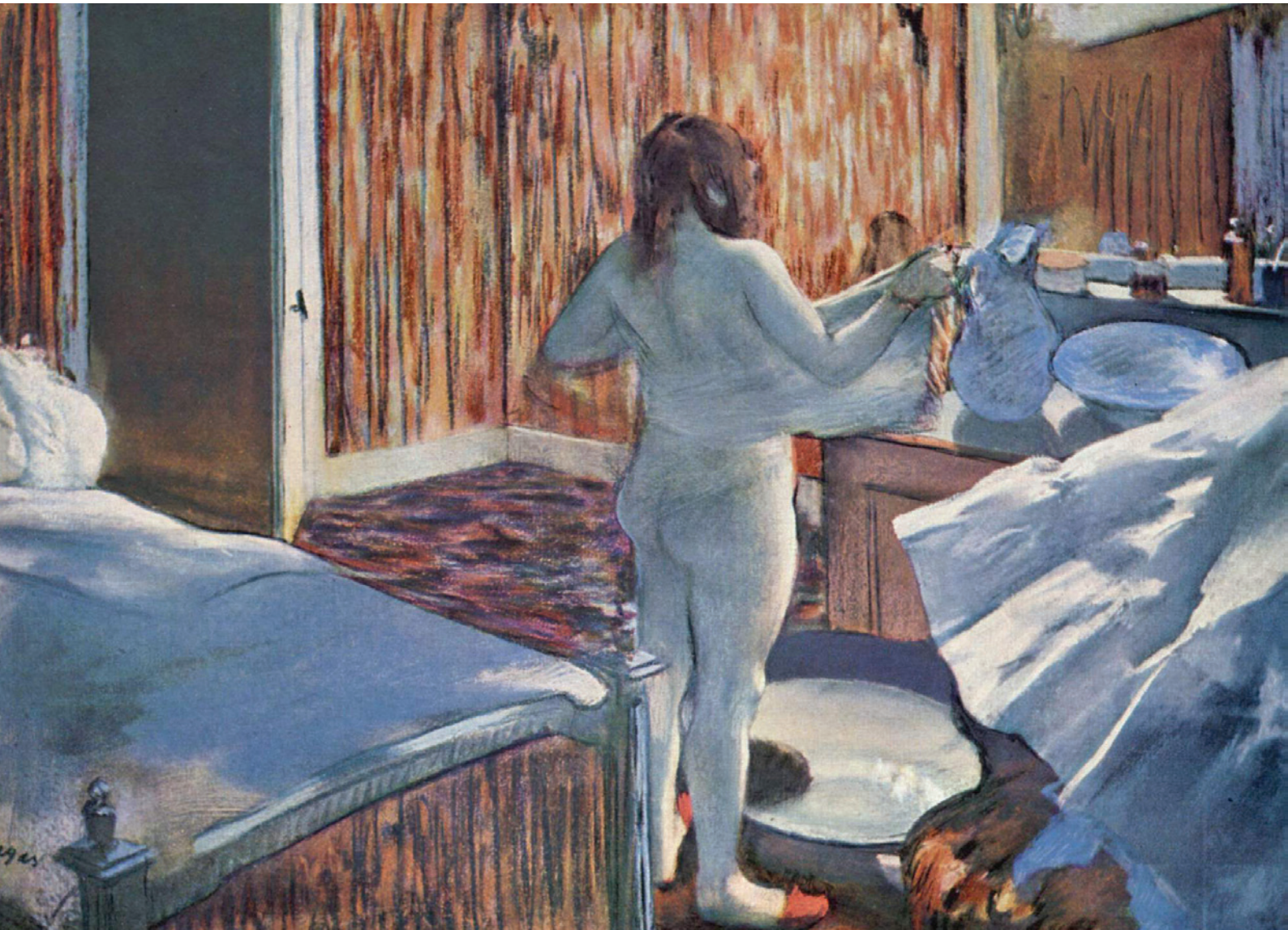
아이를 안고 앉아있는 보모(Nurse sitting holding her baby), 조르주 세라 (Georges Seurat) 1886-88, 목탄 드로잉 / 사진 출처 : 위키아트

선에 따라 변화하는 순간에 감각적으로 느낀 인상들은 드가의 파스텔 드로잉 작품의 형형한 색채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드로잉 회화의 주제가 되다

하지만 모더니즘 시기에도 여전히 드로잉은 회화의 부수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 1900~1914년 입체주의 시기에 들어서자 드디어 회화 작품 안에서 드로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상을 해체 분석하여 화면을 재구성하면서 신문 같은 재료를 오려 종이를 화면에 붙이기도 하고 글씨를 적어 놓기도 했다. 즉 콜라주이다. 콜라주를 통해 드로잉을 구성하는 것에 관한 고찰, 드로잉과 회화, 또 드로잉과 다른 오브제 간의 관계에 발전의 변화가 있었다.

드로잉이 회화의 전면에 나타나 그 자체가 주제가 된 시기가 있었으니 1950년대의 추상표현주의 시대였다.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올 오버 페인팅은 일 점 투시도 법에 따라 화면의 주중관계를 구현하며 구속되어 있던 유럽의 예술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 중



화장실에 있는 여인(Woman at Her Toilette) 에드가 드가, 파스텔 드로잉 1876-1877 / 사진 출처 : 위키아트

하나였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 회화는 기본적으로 캔버스를 세워놓고 붓으로 일 점 투시도법으로 대표되는 원근법이 하나의 체계였으며 올 오버 페인팅은 이러한 것을 깨는 시도였다.

또한, 잭슨 폴록의 물감을 떨어뜨리는 행위, 튀기고 흘리는 행위는 비 관습적인 것이었다. 폴록의 선은 전통적인 드로잉이 그려왔던 것처럼 이미지를 규정하거나 면의 경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선과 선이 엉켜지게 되면서 하나의 신(scene)을 이루게 했다. 물감을 뿌리는 드립핑 기법으로 거대한 회화는 중심을 상실하게 되고 몸을 사용하여 그 뿌리는 물감의 흔적은 화면에 그대로 남게

되어 신체표현 즉 행위에 의한 회화 즉 액션 페인팅이 탄생하게 되었다.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은 무의식과 신체를 결합한 시도를 하였으며 전통적인 서구회화에서 회화와 드로잉의 구분이 없어졌으며 드로잉 그 자체가 주제가 되게 된다.

잭슨 폴록의 올 오버 드립핑 회화는 이것이 회화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른바 작품보다 행위를 중요시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예술 개념이 탄생하게 된다. 그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표현은 드로잉으로 불리며 드로잉이란 선을 긋는다는 의미의 의식적인 혹은 우발적인 소묘가 이루어내는 형상뿐만 아니라 선을 만들어 내는 동작까지도 포함한다는 새로운 드로잉의 관점이 탄생하였다.



넘버 31 (One: Number 31) 잭슨 폴록, 1950 / 사진 출처 : 위키아트

드로잉 개념만을 남겨 두다

잭슨 폴록이 신체 드리핑으로 그림에 자신의 흔적을 명확히 나타내었다면 솔 르윗(Sol Le Witt)은 작가의 생각 즉 개념만을 남겨두고 모든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다. 개념 그 자체만을 드러내기 위해 더없이 좋은 미디어인 드로잉은 이제 그 아이디어 즉 그 근원 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솔 르윗은 1968년부터 2007년 세상을 뜨기까지, 근 40년 동안 <월 드로잉> 연작을 반복하여 제작했다. 글자 그대로 벽에 연필이나 분필 등으로 직접 드로잉을 하는 이 작품은 대체로 직선이나 곡선, 때때로 부정형의 선을 다양한 각도와 조합으로 긋는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작가인 솔 르윗이 직접 제작한 것은 각각의 작품을 그리는 방법을 기술한 '설명'이 들어간 '증명서'와 작은 '도안' 뿐이었고, 실제로 벽에 선을 그은 건 작가가 고용한 수많은 '제도사'들이었다. 르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미술품이 아니라, 그 작품에 내재한 '아이디어'였기 때문이다. 솔 르윗은 <월 드로잉> 자체에 서명을 남긴 적이 없고 '증명서'에는 최초로 작품을 실현한 제도사들의 이름을 반드시 적었으며 작품이 전시될 때 벽에 붙는 레이블에는 르윗과



월 드로잉(Wall Drawing), Sol Le Witt, 파리龐피두 센터(The Centre Pompidou-Metz)에서 열린 솔 르윗 회고전 전경, 1968년도에서 2007년까지의 작품들, 2012 / 사진 출처 : 위키미디어

함께 제작에 참여한 모든 제도사의 이름을 기재했다.

현대 미술에서 드로잉은 이제 화가의 생각이나 느낌 또는 이상을 순수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며 하나의 독립된 표현 예술로서의 가능성이 새롭게 탐구되고 있다. 또 다른 매체를 사용하여 드로잉의 개념을 확장하며, 그 표현 방식이나 유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자! 이제 드로잉을 주목할 때이다. 🖋